

##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에 관한 재고찰

이신열(고신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많은 칼빈 학자들이 칼빈의 신지식 (the knowledge of God)에 관해서 고찰해왔다. 많은 연구 결과물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드워드 다우이 (Edward A. Dowey, Jr.)의 단행본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칼빈의 신지식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 다우이의 독특한 공헌은 이중적 신지식을 <기독교 강요>의 구조적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전체 신학의 차원에서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구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cognitio Dei creatoris*)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cognitio Dei redemptoris*)이라는 <기독교 강요>의 1권과 2권의 제목들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우이는 칼빈의 신학적 사고가 두 가지 지식에 의해서 양분화되는 역동적 (dynamic)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종의 변증법적(dialectic) 관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다우이는 이렇게 이분화되고 더 나아가서 양극성 (bipolairty)을 지닌 신지식에 내재하는 논리적 관계를 다루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이중적이며 또한 동시에 양극성을 지닌 신지식에 대한 다우이의 사고는 칼빈이 역동적이며 이중적 사고를 지닌 16세기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우이는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을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사고로 규명한다.

파커 (T. H. L. Parker)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 칼빈의 이중적 신지

---

1)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3rd ed. (Grand Rapids: Erdmans, 1994).

식에 대한 다우이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sup>2)</sup> 먼저 파커는 4 권으로 구성된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중적 신지식 보다는 오히려 칼빈 신학의 이중적 목표 (*scopus duplex*)에 기초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 이중적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밝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하여 이 이중적 목표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 구조를 놓고 살펴볼 때, 다우이가 주장하는 이중적 신지식이란 전체적 구조를 결정하는 커다란 주제이기 보다는 이 이중적 목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점에 있어서 다우이가 내세우는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이중적 신지식이 <기독교 강요>의 전체적 구조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칼빈이 말하는 이중적 신지식을 더욱 그의 본래적 의도에 충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우이의 방법론은 이중적 신지식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칼빈이 경험하였던 내적 갈등과 시대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그 역동적 차원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초월성에 기초를 둔 양극성을 강조하는 변증법적 차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그러나 다우이의 주장이 지닌 탁월한 논리력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칼빈 자신의 주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칼빈 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영광이 다우이의 이중적 신지식 이해에 의하여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칼빈 학자들이 그의 <기독교 강요>의 원동력으로서, 그리고 그의 신학의 전체적 주제로서의 '오직 하나님께

2)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Edinburgh: Oliver & Boyd, 1969).

3) *Ibid.*, 8ff.

영광' (*soli Deo gloria*)이라는 주제에 동의한다.<sup>4)</sup> 다우이의 견해는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 그 자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그의 신학적 사고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적이며 양극적인 이중성에 의하여 형성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우이의 이러한 분석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양극성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칼빈이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칼빈 이해에 있어서 다우이의 견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칼빈에 대한 루터의 영향력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칼빈이 루터가 주장하였던 종교개혁의 동기와 기본적 내용을 자신의 신학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루터가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양극적이며 서로 상반되는 개념, 즉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에 상응하는 신 관념을 칼빈이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루터가 주장하였던 '숨어계신 하나님' (*Deus absconditus*)<sup>5)</sup>의 개념을 칼빈이 수용하였던 것도 아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본질은 원래 숨겨져 있으며 그 본질이 계시를 통해 드러나지만 이 드러남의 행위 가운데 여전히 그의 본질이 숨겨진 채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함 그 자체가 은혜이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서움과 영광스러움이라는 모순된 차원이 공존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sup>6)</sup> 여기에 루터의 변증법적 사고의 핵심이 숨겨져 있지만 칼빈은 그의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루터의 이러한 변증법적 차원이 아닌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개별적 인간을

4) Alexandre Ganoczy, *Ecclesia ministrans: dienende Kirche und kirchlicher Dienst bei Calvin* (Freiburg: Herder, 1968), 29ff; Manijn de Kroon, *De eer van God en het heil van de mens: Bijdrage tot het verstaan van de theologie van Johannes Calvin naar zijn Institutie* (Leiden: J. J. Groen & Zoon, 1996), 17-57.

5) Walther von Loewenich, *Luthers Theologia Crucis* (Bielefeld: Luther-Verlag, 1982), 26-52; Gerhard Ebeling, *Luther* (Tübingen: J.C.B. Mohr, 1981), 259-79.

6) J. T. Bakker, *Coram Deo: Bijdrage tot het onderzoek naar de structuur van Luthers theologie* (Kampen: J. H. Kok, 1956), 23.

만나시는 존재로서 묘사한다.)<sup>7)</sup> 따라서 루터의 숨어계신 하나님 이해와 차별화되는 칼빈의 하나님 이해를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신학적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지나치게 최소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루터의 신학이 변증법적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칼빈의 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칼빈과 루터의 하나님 이해에 드러난 공통점을 무시한 채 단지 차이점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루터와 칼빈 사이에 드러난 분명한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칼빈의 신론이 인간의 하나님 이해와 이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결과를 목표로 삼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신론에는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이 추구하였던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sup>8)</sup> 칼빈의 하나님 이해는 중세의 전형적이며 교과서적인 신론의 방법론을 탈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론의 주된 내용은 인간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차원에서 신지식이라는 대명제에 의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중적 신지식은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차원 또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분수령은 다름 아닌 칼빈의 인간 이해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찰한 후에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찰하기에 앞서 인간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런 칼빈의 신학적 사고를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창조주 하나님

7) 칼빈의 신론은 자신의 의도에 충실하게 인간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지식과 직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묘사가 결여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Ganoczy, *Ecclesia ministrans*, 31-32.

8) Inst. I.13.3.

님 이해와 인간 이해,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이해를 살펴 본 후에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을 양자 사이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판한 후에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칼빈의 창조주 하나님 이해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 이해에 앞서 그가 이해하였던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빈의 신론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 자체에 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기를 거부하는데 놓여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을 초월한 신비에 속한다.”<sup>9)</sup> 이는 신론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신의 불가해성 (incomprehensibility)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법인데 이는 초대 교부들의 견해를 따르는 것 이었다. “우리 인간이 매일 눈으로 보는 태양이라는 천체가 무엇인지를 아직 분명히 알 수 없는데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한정된 인간의 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실로 인간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sup>10)</sup>

이는 ‘한 하나님’ (de Deo Uno)과 ‘삼위 하나님’ (de Deo Trino)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던 중세 신학의 전형적 신론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칼빈이 자신만의 독특한 신론을 형성하였음을 뜻한다. 칼빈은 신지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이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

9) Inst. I.5.1: “Essentia quidem eius incomprehensibilis est, ut sensus omnes humanos procul effugiat eius numen; ...”

10) Inst. I.13.21: “Quomodo enim immensam Dei essentiam ad suum modulum mens humana definiant, quae nondum statuere certo potuit quale sit solis corpus, quod tamen oculis quotidie conspicitur? Imo vero, quomodo proprio ductu ad Dei usque substantiam excutiendam penetret, quae suam ipsius minime assequitur?”

만한 지식이 선천적으로,<sup>11)</sup> 그리고 '신적 인식' (*sensus divinitatis*)의 형태로<sup>12)</sup> 주어져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지음 받았음을 뜻한다.<sup>13)</sup>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우매함과 악의로 이러한 '종교의 씨앗' (*semen religionis*) 또는 '신적 인식'을 거의 소멸시키거나 부패시키고 말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능을 비추어 주시는데 인간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실상 하나님을 대신하여 각종 우상을 섬기는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sup>14)</sup>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따로 기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적 인식이 창조 세계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분명해지지만 인간은 이러한 인식을 우매함과 악의로 바꾸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니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하기를 선호하였던 중세 신학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이러한 속성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칼빈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와 방델 (Francois Wendel)이 지적하듯이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철학적으로 추론된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 지식이 아니다.<sup>15)</sup>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합리적 설명보다 인간이 이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더 적합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칼빈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11) Inst. I.3.1.

12) Inst. I.4.1.

13) CO 49, 23 (롬 1:19 주석): "Quod dicit Deum manifestasse, sensus est, ideo conditum esse hominem et spectator sit fabricae mundi; ideo datos ei oculos, ut intuitu tam pulchrae imaginis ad autorem ipsum feratur."

14) Inst. I.5.12.

15) 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64.

는 칼빈이 피조 세계가 이미 그 자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울 또는 형상이기 때문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sup>16)</sup>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 이해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된 경건과 합당한 예배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서 신론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헛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되고 실제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 종교개혁자 칼빈 신론의 참된 모습이 드러난다. 그의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즉 경건과 예배 의식으로 이끄는 신론이며 그의 신학은 참된 하나님 (*verus Deus*)을 아는 참된 신학 (*vera theologia*)이라고 볼 수 있다.<sup>17)</sup>

### III. 칼빈의 인간 이해

그렇다면 칼빈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칼빈의 인간 이해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하나님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한다. 칼빈은 인간 이해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올바른 신지식을 지니지 않은 채 인간이 자신을 아는 것은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8)</sup>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칼빈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지식을 뜻한다. 하나님에 대한

16) CO 49,23 (롬 1:20 주석): "Deus per se invisibilis est: sed quia elucet eius maiestas in operibus et creaturis universis, debuerunt illinc homines agnoscere: nam artificem suum perspicue declarat. ... Non recenset autem singillatim quae in Deo considerari possunt: sed docet ad aeternam usque eius potentiam et divinitatem perveniri."

17) CO 32,45 (시 97:7 주석): Herman J. Selderhuis, *God in het midden: Calvijs theologie van de Psalmen* (Kampen: Kok, 2000), 51-53.

18) CO 55,148 (히 11:6 주석): "Nec vanas modo, sed vitiosas quoque esse omnes religiones, quae certam Dei notitiam coniunctam non habent: quoniam a Dei accessu prohibentur omnes qui eum ab idolis non discernunt."

참된 지식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서 칼빈은 전자를 후자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칼빈의 인간 이해는 인간에게 유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가 주장하는 인간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칼빈은 이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긍정적 요소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한 것이며 부정적 요소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인하고 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이해는 모든 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분의 선을 받아 누리고 그에게 보답하는 결과로 나타난다.<sup>19)</sup>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한 일에 열중하는 인간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명백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한다.<sup>20)</sup>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이해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심판주로 믿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로부터 스스로를 삼가는 행위로 나타난다.<sup>21)</sup>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피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가리킨다.<sup>22)</sup> 칼빈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란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또한 그의 사랑과 선하심의 속성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긍정

19) Inst. 1.2.2: "Quid denique iuvat Deum cognoscere quocum nihil sit nobis negotii? Quin potius huc valere debet eius notitia, primum ut ad timorem ac reverentiam nos instituat; deinde ut ea duce ac magistra omne bonum ab illo petere, et illi acceptum ferre discamus."

20) CO 31,339 (시편 34:8 주석).

21) Inst. 1.2.2: "... quia iustum esse iudicem videt, suaque severitate armatum ad vindicanda scelera, eius tribunal semper in conspectu sibi proponit, ac ipsius metu se retrahit ac cohibet ab ira eius provocanda."

22) Ibid: "Praterea non sola vindictae formidine se coercet a peccando, sed quia Deum loco patris amat et reveretur, loco domini observat et colit, etiamsi nulli essent inferi, solam tamen eius offensionem horret."



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는 사실상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루터처럼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공의와 진노라는 하나님의 속성에만 관계할 뿐 나머지 속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방식의 양극적 접근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 요소에 언급된 공의와 진노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는 조화를 중요시하는 신학이 전개된다.

이러한 칼빈의 인간 이해는 창조론의 일부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는 인간론을 크게 두 부분, 즉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나누어서 다룬다. 첫 번째 부분에서 그의 강조점은 인간의 타락 이전 상태가 교만이 아닌 겸손의 상태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sup>23)</sup>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러서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통하여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죄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교만의 죄이다. 자신이 지닌 육적인 것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여 자신의 상태를 현실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죄악을 이기려는 노력만으로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다.<sup>24)</sup>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살펴볼수록 자신의 절망 상태를 직시하고 자신에 대한 맹신을 버리면서 올바른 자기에 대한 지식을 지닌 사람이다. 교만은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만든다.<sup>25)</sup> 칼빈은 인간의 교만과 고귀성 (*nobilitas*)의 차이

23) Inst. I.15.1: "Postea suo loco videbimus quam longe absint homines ab ea puritate qua donatus fuerat Adam. Ac primo tenendum est, quum ex terra et luto sumptus fuit, iniectum fuisse superbiae fraenum; quia nihil magis absurdum est quam suam excellentia gloriari qui non solum habitant tugurium luteum, sed qui sunt ipsi ex parte terra et cinis."

24) Inst. II.1.3: "Tunc enim homo, iudicio carnis, probe sibi exploratus videtur, quum et intelligentia et integritate sua confisus audaciam sumit, ac sese incitat ad virtutis officia, et indicto vitii bello ad id quod pulchrum et honestum est toto studio incumbere conatur."

25) Inst. II.1.2: "Talibus ergo magistris, qui reputandis tantum bonis nostris nos detinent, si quis auscultet, non in sui conginitionem proficiet, sed in pessimam

를 분명하게 밝힌다. 인간의 고귀성이란 인간 창조의 목적과 관계된 것으로 불멸을 향해 지음 받았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선과 의를 추구하는 열의를 가져다준다.<sup>26)</sup> 인간이 자신이 지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그 완전함에 미무르는 헛되고 무익한 생각과 태도가 교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칼빈이 주장하는 고귀성이란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향한 열정으로서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창조 목적을 되새기고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이라는 유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교만과 고귀성이 혼돈되지 않고 분명하게 구별되어 후자가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칼빈은 주장한다.<sup>27)</sup>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죄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만다. 인간의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전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전가된 것으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빼앗아 버렸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됨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게 신인 (God-man)으로 이 땅에 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뜻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 분만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고 실추된 자유를 회복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의 인간 이해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시작하여 죄악의 세력 아래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논리로 전개된다.

여기에서 칼빈의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긍정적 요소에서 출

ignorationem abripietur.”

26) Inst. II,1,3: “Neque tamen vult nos oblivisci Deus primae nobilitatis, quam Adae patri nostro contulerat, nempe quae nos ad iustitiae bonitatisque studium merito expergefacerere debeat.”

27) Inst. II,1,3.

발하여 인간의 교만이라는 죄로 야기된 부정적 요소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또는 그의 인간 이해가 결코 이러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충돌하는 변증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칼빈 학자들은 인간론에 있어서 칼빈의 변증법적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당대에 형성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사이에 존재하였던 충돌에서 찾으려 그가 이러한 충돌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신학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한다.<sup>28)</sup>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였던 바는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결과 거기에 죄라는 부정적 요소가 아무리 강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자신의 선한 의지와 계획 속에서 지워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 IV. 칼빈의 구속주 하나님 이해

칼빈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과 개념을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서부터 미루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과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 화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고 밝힌다.<sup>29)</sup> 그리고 <기독교 강요> 2권 6장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칼빈은 지금까지 논의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

28) Brian G. Armstrong, "Duplex Cognition Dei, Or? The Problem and Relation of Structure, Form, and Purpose in Calvin's Theology," in Elsie Anne McKee & Brian G. Armstrong (eds.),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89), 137-38. 부스마는 칼빈의 사고가 16세기의 시대적 상황이 가져다주었던 불안과 염려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그 결과 그가 체험하였던 세계는 질서가 무너진 세계이었다고 간주한다.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32-65.

29) Inst. I.2.1.

한 결론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믿음이 뒤따르지 않는 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sup>30)</sup> 그의 이 평가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지식이 서로 별개라는 자신의 주장을 뒤엎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논리적으로 선행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sup>31)</sup>

그렇다면 칼빈은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먼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1-5장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된 속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독생자의 몸에 접붙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주 합당치 않은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지닌 특징은 그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증보자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속죄주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칼빈은 이 지식이 세상의 시초부터 모든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

30) Inst. II.6.1: “Ergo postquam excidimus a vita in mortem, inutilis esset tota illa Dei creatoris, de qua disseruimus, cognitio, nisi succederet etiam fides, Deum in Christo patrem nobis proponens.”

31) CO 55,12 (히 1:3 주석): “... ut dicamus, non aliter Deum nobis patefieri quam in Christo. Tam enim in Die essentia immensus est fulgor, ut oculos nostros perstringat donec nobis affulgeat. Haec vere utilis est philosophia, ex sciro fidei sensu et experimento discere Christi excellentiam.”; CO 50,53 (교전 4:6 주석); CO 47,19 (요 1:18 주석)

32) Inst. II.6.1: “Et sane non ad alios quam Dei filios pertinet coelorum haereditas. Filiorum autem loco et ordine censi minime consentaneum est, qui non insiti sunt in corpus unigeniti filii.”

게 확실하게 주어졌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 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3)</sup>

계속해서 칼빈은 율법의 제정 목적과 십계명을 해설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율법에 의해 알려져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칼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가 복음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이를 대조하였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연속선상에 놓고 해석한다. 즉 율법과 복음 사이에 상이점은 존재하나 그 어떤 모순도 없다고 이해한다.<sup>34)</sup> 그는 율법에 의해 이미 예고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이 복음의 빛에 의해 더욱 밝게 빛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구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나간다.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구약은 그를 형상이나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마지막으로 <기독교 강요> 2권 12장 이하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증보자 직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면서 성육신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인성, 증보자의 두 위격이 지닌 통일성을 다룬다. 여기에서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증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에 해당된다. 칼빈의 증보자 이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토대위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증보자로서 인간이어야 한다는 안셀름의 논리를 따르지만 그의 견해와는 달리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를 성령론적으로 해석한다. 딤편 2:5에 나타난 증보자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왜 사도 바

---

33) Inst. II.6.4: " ... hinc palam fieri quod nuper diximus, salvificam Dei cognitionem absque Christo non constare: ideoque ab exordio mundi ipsum fuisse propositum omnibus electis in quem respicerent, et in quo acquiesceret eorum fiducia."

34) Inst. II.9.4

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신' 분으로 묘사하였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보자로 말하려고 할 때, 명백히 인간임을 강조한 것은 근거없는 일이 아니었다. ...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인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연합함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어디서 증보자를 찾아야 하는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를 찾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불러서 그가 우리의 육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아니 그가 우리에게 인접해 있음을 교훈하신다."<sup>35)</sup>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론적 이해는 그의 삼중직에 관한 이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칼빈은 그가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자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 61:1-2):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직분을 다른 교사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이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데 역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sup>37)</sup> 또

35) Inst. II.1.4-5.

36) Inst. II.12.1: "Non ergo abs re Paulus Christum proponere mediatorem volens, diserte commemorat esse hominem. ... Poterat Deum dicere: poterat saltem et nomen hominis sicut Dei omittere; sed quia spiritus per os eius loquens infirmitatem nostram noverat, ut tempestive occurreret, aptissimo remedio usus est, ... Ne quis igitur se torqueat ubinam ille quaerendus mediator, aut qua via ad ipsum perveniendum, hominem nominans, propinquum, imor contiguum nobis esse admonet, quandoquidem csaro nostra est."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프랑수와 방델은 칼빈의 누가복음 2장 50-52절에 대한 설교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있어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이었다.' 라고 주장한다.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235: CO 46,487f.

한 그의 왕적 직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왕으로서의 영적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도 (요 3:34) 장차 거하게 될 하늘에서 우리의 영적 풍성함을 위한 것이라고 칼빈은 이해한다: “특히 하늘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생기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자기 자리에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 하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흘러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sup>38)</sup>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힌다.<sup>39)</sup> 이와 같은 성령론에 근거한 기독교론적인 논의를 통해 칼빈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성된 것이며 인간의 구원은 그 분을 아는 것으로 충족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 V.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의도하였던 이중적 신지식에 있어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지

37) Inst. II.15.2: “Videmus unctum spiritu fuisse ut praece et testis esset gratiae patris: neque id communis nore: quia a reliquis doctoribus, quorum simile erat officium, discentitur, ... ut in continua evangelii praedicatione virtus spiritus respondeat.”

38) Inst. II.15.5: “Maxime vero quod ad coelestam vitam spectat, nulla est in nobis vigoris gutta, nisi quam nobis spiritus sanctus instillat, qui sedem in Christo delegit, ut inde large ad nos scaturirent coelestes dicitiae quarum adeo sumus egeni.”

39) Inst. II.15.4.

급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교만과 우매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인간이 자신을 아는 지식도 교만을 비롯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의해 그 효력을 멈추게 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은 인간 본성의 회복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 회복은 부패 타락한 인간을 죄악에서부터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구속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체적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적 역할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무효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이중적 하나님 이해가 결코 서로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한 분의,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특정한 수단 (instrument)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다우이는 이 수단으로 율법(law)을, 윌리스 (E. David Willis)는 '칼빈주의적 바깥' (*extra Calvinisticum*)을 채택하였다.

### 1) 다우이 (Edward A. Dowey, Jr.)

먼저 다우이는 율법을 자연 속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표준화된 형태로서 이해한다.<sup>40)</sup>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가 세상에 계시된 형태로서의 율법은 자연세계에 질서를,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우이의 이러한 설명은 <기독교 강요> 1권과 2권에 근거한 공통적 해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2권에 더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칼빈 자신은 오히려 율법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또한 1권 전

40)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222-32.



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우이가 말하는 율법은 1권에서 자연의 법과 인간 타락 이후의 법으로 나누어지는 반면 이 두 가지 율법의 용례가 2권에서 모두 적용되었다고 이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 즉 사랑의 율법(*lex-caritas*)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를 표상한다고 설명한다.<sup>41)</sup> 이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칭의, 성화로 나타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의 반항과 죄악으로 깨어진 율법의 회복자로 또한 율법의 완성자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하나님의 아들로써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완성된 구속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 창조 이전에 그가 누렸던 영광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42)</sup>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사랑의 율법이란 사실상 2권에 더욱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 법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연관되는가에 관해서는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우이가 내세운 이중적 신지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율법의 한 가지 용례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용례는 구속주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 2) 윌리스 (E. David Willis)

윌리스는 칼빈의 기독교론에 관한 단행본에서 앞서 다우이가 언급하였던 그리스도의 역할에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주로 나타나

41) *Ibid.*, 232-38.

42) *Inst.* II.14.3; II.15.5; I.13.26.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237.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성으로서 구속을 실천한 후에 누리는 영광이 그가 창조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 동일하다는 다우이의 설명이 사실상 어떻게 율법이 적절하게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다우이가 내세운 설명은 율법이 어떻게 그가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신 제 2위 하나님인 말씀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육체 외에 현존한다는 주장이 '칼빈주의적 바깥'의 주된 내용이다.<sup>43)</sup> 칼빈은 이에 상응하는 개념을 <기독교 강요> 2권 13장에서 다루고 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버리지 않으셨고, 기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지상을 두루 다니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원하셨지만 태초로부터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항상 충만히 채우고 계셨다는 것이다."<sup>44)</sup> 칼빈은 이를 통하여 말씀의 성육신이 하나님이 육체에 묶이게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진리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며 실제로 동일한 한 분이신가를 고찰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말씀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을 통하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현현하셨음을 뜻한다. 이는 '칼빈주의적 바깥'이라는 개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담겨 있음을 가리킨다.<sup>45)</sup>

그렇다면 다우이가 내세우는 이중적 신지식에 대한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차원에 의해서 설명되는 구속주 하나님의 우선권, 즉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주장은 결국 다우이가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를 성육신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구속주와 정확하게 동일시하는 가정 (assumption)에서 비롯된 것이다.<sup>46)</sup>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소하고 그 분만으로 제한시킨 결과는 다우이로 하여금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창

43)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Leiden: E. J. Brill, 1966), 1.

44) Inst. II.13.4: "Mirabiliter enim e coelo descendit filius Dei, ut coelum tamen non relinqueret; mirabiliter in utero virginis gestari, in terris versari, et in cruce pendere voluit, ut semper mundum impleret, sicut ab initio."

45)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6.

46) *Ibid.*, 124.

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선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칼빈이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였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만을 가리키는 것을 아니다.<sup>47)</sup>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란 성육신 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구속주를 가리킨다.<sup>48)</sup>

그렇다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중보자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뒤로 미루었던 사실<sup>49)</sup>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는 칼빈이 그리스도를 인간 타락 이후의 중보자로만 이해하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비천하고 낮은 상태는 그 자체로서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타락 여부와 관계없이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뜻한다.<sup>50)</sup>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논하는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 2위 하나님께서 성육신 이전의 상태에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살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논하는 1권에서 인간이 되신 구속주 하나님을 동시에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을 강조하되 특히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기독교 강요> 1권과 2권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사실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속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발견된다.

47) Ibid., 67-78.

48) Inst. II, 7-11.

49) Inst. I.2.1, I.6.1, I.13.9.

50) Inst. II.12.1: "Quarvis ab omni labe integer stetisset hom, humilior tamen erat eius conditio quam ut sine Mediatore ad Deum penetraret."

윌리스가 내세우는 '칼빈주의적 바깥' 개념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가? '칼빈주의적 바깥' 개념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본래 상태와 성육신 이후의 그리스도의 상태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신적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어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구속주이자 심판주이심과 동시에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여겨진다.

## VI. 이중적 신지식 이해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

그렇다면 이중적 신지식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구속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이 증보자라는 사실,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를 창조주 하나님과 차별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수단을 통하여 이런 실제적인 차이가 극복될 수 있을까? 칼빈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실상 성경을 일종의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인간의 교만과 우매함, 그리고 반항의 결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히 드러내는 존재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에게 제시된 유일한 대안은 성경이다.<sup>51)</sup> 성경은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극장으로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경과 같은 것이라고

5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성경을 통한 이러한 신지식이 불가능하다.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조명이라는 두 가지 사역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줄고를 참고할 것. 이신열, "이원론적 성령 사역? 성령의 증거와 조명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10 (2008): 75-97.

칼빈은 설명한다.<sup>52)</sup> 성경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잡이이자 교사이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의 역할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증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든다. 이 이중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과 그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도록 만든다. 성경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연의 기원, 목적, 그리고 이에 드러난 신성의 광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순서적으로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게 해주는 지식이 먼저 온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을 통하여 죽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내적 지식이 결부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세상의 창조주요, 또한 삼라만상의 유일한 창시자요 심판주로서 뿐 아니라 증보자의 인격을 지닌 구속주로서 알게 된다.”<sup>53)</sup>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먼저 논의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계시가 보여줄 수 없는 신적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하고 이를 자세하게 설명한다.<sup>54)</sup>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논함에 있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한다. 성경은 참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

52) Inst. I.6.1.

53) Ibid: “Ordine enim praecessit illa notitiae species qua tenere daturm fuit, quisnam sit Deus ille a quo mundus est conditus et gubernatur. Deinde adiuncta fuit altera interior, quae sola mortuas animas vivificat, qua Deus non tantum mundi conditor, et omnium quae fiunt unicus autor et arbiter cognoscitur, sed etiam redemptor in mediatoris persona.”

54) Inst. I.13.

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각 위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신성을 증명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추구한 후에 2권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찰한다. 2권에서는 삼위일체의 빛 가운데서 성자의 신성을 고찰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pro nobis*)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증보자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써 고찰한다. 물론 1권에 주어진 삼위일체론이 2권에 논의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와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표현하듯이 성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베푸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추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순서임이 분명하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 이해를 위해서 성경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 계시되어 있으며 신약은 복음의 빛을 통하여 이미 계시된 그리스도를 더욱 명백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께서 증보자이시며 또한 인간이셔야만 한다는 절대적 진리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중적' 신지식을 구성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분인 율법도, 칼빈주의적 바깥 개념이 말하는 육신을 덧입지 않은 상태의 그리스도도 아닌 바로 성경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책으로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확인하도록 만든다. 인간의 우매함과 무지로 어두워지고 흐려졌던 신지식에 명료함 (*clarification*)을 부여한다.<sup>55)</sup> 이는 인간

55)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144-45. 여기서 '명료함'이란 창조를 통해 이미 주어진 계시의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 새롭게 인식되는 차

으로 하여금 그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이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부여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끈다. 성경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알아서 유익한 모든 것을 성령을 스승으로 삼아 가르치는 학교이다.<sup>56)</sup> 이러한 학교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주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는 지식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이중적 지식을 포괄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서 진정한 신학의 근간을 제공하는 '진정한 학교' (*vera schola*)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이터 (Karl Reuter)가 주장한 것처럼 이중적 신지식은 서로 구별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 계시의 중재자에 의해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이 칼빈 신학의 기본적 구도와 이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sup>57)</sup>

## VI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이 주장하는 이중적 신지식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우이 이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이중적 신지식에 내재된 역동적이고 양극적이며 변증법적 요소를 <기독교 강요>와 그의 신학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윌리엄 부스마 (William Bouwsma)가 내세웠던 칼빈에 대한 16세기적 이해로 인해 더욱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즉 칼빈의 신학에서 사고의 통일성과

원을 뜻한다.

56) Inst. III,21,3: "Est enim scriptura schola spiritus sancti, in qua ut nihil praetermissum est scitu et necessarium et utile, sic nihil docetur nisi quod scire conducatur."

57) Karl Reuter, *Das Grundverständnis der Theologie Calvins* (Neukirchen-Vluyn: Neukirchner, 1963), 131-32. 로이터도 칼빈의 이중적 신지식 이해에 있어서 다우이가 주장하였던 변증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서 조화와 일관성을 중요시하여 성경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우이와 견해를 달리 한다.

일관성을 찾기 보다는 본인의 내면에 존재하였던 갈등과 충돌이 이러한 신학적 역동성과 변증법적 요소를 도출하였다고 이해하는 시도들이다. 또한 다우이는 이중적 신지식의 구도가 지닌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성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펼친다. 그러나 파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칼빈이 의도하였던 이중적 구도 (*duplex scopus*)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스스로를 아는 지식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이 그의 <기독교 강요>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적 총괄점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다우이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지배된다는 결론이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상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요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칼빈 자신이 이해하고 주장하였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학자인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획득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우이는 자신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율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가 이해한 율법이 성경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또한 자연의 한 측면이라고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범주의 혼돈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우이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면 이는 자연에 내재하는 법칙을 넘어서는 초월성의 문제에 해당된다. 표면적으로 자연 세계에 작용하는 일관성과 규칙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되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윌리스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세웠던 '칼빈 주의적 바깥' (*extra Calvinisticum*)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성육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윌리스의 해결책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단순하게 제 2위 하나님으로만 국한시



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칼빈이 제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윌리스는 이를 어떤 구체적 상황 설명 없이 한 위격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말한다. 더욱이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구체적 내용은 성육신이 발생하였는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견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오히려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윌리스의 견해에 근거하여 이중적 신지식에 있어서 한 종류의 신지식이 선호되고 다른 종류의 신지식이 이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성육신, 즉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므로 사실상 윌리스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결책은 칼빈이 제안한 바에 따라 성경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우매함과 반항으로 흐려지고 어두워진 인간의 시력을 바로 잡는 안경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이끄는 교사이자 안내자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예언하였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추주고 가르쳐 주는 성령의 학교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성경은 다우이를 비롯한 칼빈 학자들이 제시한 이중적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양극성과 변증법적 성격을 극복하고 이 지식을 조화된 일체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중적 신지식이 이렇게 이해될 때 칼빈 신학의 전체적 구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틀 또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